

## 믿음

칭의와 중생에 대한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피터 뵐러가 웨슬리로 하여금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의 주요 두 열매는 (용서의 의미로부터)평화와 (신생의 능력을 주는 은총인) 능력임을 인식하도록 도왔는지 논증한 바 있다. 이 두 열매는 행복과 거룩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구속을 가져오는 신앙으로 특징된다. 또한 웨슬리는 두 구분된 은총, 곧 법정의 은총(칭의)와 참여적 은총(성화의 시작)이 믿음을 통해서만 은총으로 받게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1741년 자신의 영국 국교회 전통을 살핀 다음부터 뵐러를 뛰어넘는 결정적인 행보를 했다. 실천신학 영역에 뵐러의 통찰을 적용하여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거룩한 삶의 전통과 온전한 성화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칭의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만 받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값없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임을 주장했던 종교개혁 전통을 연결했다. 그 후 한참 시간이 지난 1765년, 자신의 사상의 연속을 입증하며 이 문제를 정리했다. “믿음은 순간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성화에 필연적이다. 믿음은 순간적이며 근접적으로 성화에 필연적인 유일한 조건이다.”

웨슬리는 믿음과 관련하여 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새겨지는지 기술하면서 독특한 수사법을 사용함으로써 뵐러(와 루터)와 영국 국교회의 전통을 함께 견지할 수 있었다. 때문에 자신의 일지와 편지에서 온전한 성화가 실현되는 방법으로 ‘단순한 믿음’(simple faith)와 ‘순전한 믿음’(naked faith)소개했다. 이로써 온전한 성화는 은총이 어떻게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지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1761년 ‘단순한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1773년 볼턴에게 보낸 편지에서 ‘단순한 믿음’으로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을 주장했다. 또 1786년 위커에게 편지를 보내며, ‘단순한 믿음’으로 ‘칭의와 완전한 성화’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강조와 관련하여 웨슬리는 1780년 브랙켄베리에게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성화’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 후 5년이 지나 록스데일 양에게 목회서신을 보내어 ‘처음 그 사랑’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았듯이 다시금 ‘순전한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라고 말을 했다. 마지막으로 보만 여사에게 ‘순전한 믿음’으로만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

웨슬리의 구원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이고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조차도 칭의(와 중생)와 온전한 성화가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에서 기본적인 두 초점임을 인식한다. 말하자면 칭의와 온전한 성화는 주목을 받게 되는 구분된 독특한 자리이다. 현학적으로 말해서 다음 단계는 초보적인 구분을 넘어 이와 병행하는 구조로 옮겨 간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와 그에 합당한 사역과 관련해서 병행 구조를 살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칭의와 온전한 성화가 비교될 때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이를 뵐러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가 웨슬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에 서도 자명하게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이런 점이 바로 온전한 성화는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강조했던 웨슬리의 탁월한 방법들 중 하나이다. 웨슬리는 “성서적 구원의 길”이란 설교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된다고 누차 증언한다. 즉 웨슬리는 설교에서 강조하여 말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듯이, 또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믿음은 칭의에서와 같이 성화의 조건이며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와 함께 웨슬리는 의롭게 하는 믿음과 성화를 가져다주는 믿음을 신적인 증거나 확신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여기서 유사성은 끝을 맺는다. 왜냐하면 의롭게 하는 믿음에서 신적인 증거나 확신은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하게 성화를 가져다 주는 믿음에서 신적인 증거나 확신은 우리가 칭의에 이르는 믿었던 것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한다.

첫째, 그것은 성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적인 증거와 확신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신적인 증거와 확신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지금 이룰 수 있는 신적인 증거와 확신입니다.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신적인 증거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두 사역 사이의 차이는 다시 말하지만 영적 성장 때문이다. 즉 의롭게 하는 믿음은 기독교인 삶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고 단지 시작일뿐이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깨끗케 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에 이 루고자 하는 보다 깊은 사역을 갖고 있다.

## 균형 잡힌 웨슬리의 은총 개념

완전한 사랑에 이르는 노정에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사역과 또한 온전히 성화를 가져오는 믿음을 다룰 때 웨슬리가 사용했던 용어를 주목하면, 실제로 웨슬리의 은총에 대한 이해가 하나뿐 아니라 두 개의 구분된 이해에 기초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은총에 대한 다른 두 개념들이 한 구문에 함께 사용되면 독자들은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759년에 웨슬리는 도로시 펄리에게 편지를 썼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전히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아득하게는 우리의 사역에 기초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는 단순한 믿음에 기초합니다.” 여기서 웨슬리는 비평가들이 비평했듯이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혹은 웨슬리의 개념이 혼돈에 빠져 화해할 수 없이 뒤죽박죽 된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웨슬리는 두 개의 구분된 은총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두 개의 구별된 패러다임에서 시작하여, 본래적인 기독교인의 믿음과 본래적으로 이해된 보편성에 대한 물음 안에서 이 두 은총 개념을 자신의 실천신학 안에 궁극적으로 화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셀은 “웨슬리의 신학이 ‘개신교의 은총의 윤리’와 ‘가톨릭의 거룩함의 윤리’를 필연적으로 종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회개와 사역을 나란히 전개했던 웨슬리의 입장은 그가 이미 은총에 대한 ‘가톨릭’ 이해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가톨릭의 은총 이해는 신/인 협력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응답할 수록 점차 그 정도가 자라 간다. 하나님의 협력은 인간의 주도권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행적인 활동에 응답함으로써 나온다. 웨슬리의 일지에서 보면 가톨릭적 전통이 묻어나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구든 받은 것을 자라가게 하고’, ‘자신이 이미 받은 은총을 향상시키고’라는 표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표현등이다. 이런 가톨릭적인 신/인 협력적 개념을 전개하기 때문에 웨슬리 신학의 정취가 나는 접속적 균형을 결핍하게 되고, 이런 해석학적 편견으로 인해서 개신교적 은총 이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 수 없었다. 웨슬리는 신/인 협력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홀로의 사역임을 강조한다. 웨슬리는 자신의 글에서 ‘개신교적’인 은총의 주제를 충분히 나타낸다. ‘하나님 홀로 믿음과 구원의 주이며, 모든 선한 은총의 유일한 수여자이다.’라는 표현과 ‘스스로 즐거워 거룩함을 행하신다.’고 주장하는 표현이 그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이 은총을 결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결정한다. 당시 웨슬리의 동료 칼빈주의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지만 웨슬리는 이러한 역동성을 충분히 인식한다.

‘기독교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몇 년, 혹은 몇 주, 혹은 한 주, 혹은 하루, 한 시간 안에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성화 교리와 로마가톨릭의 공로에 의한 완전의 사다리 교리가 구분된다. 웨슬리의 완전 교리는 은총의 주권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 위해 뭔가 되어야 한다든지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개신교 전통과 가톨릭 전통을 종합하는 웨슬리의 균형 있는 은총을 이해하는 두 가지 초점은 웨슬리 실천신학이 색깔도 없는 반-펠라기우스주의적 해설로 끝나거나 복음적 회개의 합당한 수단을 간과함으로써 열광주의나 정적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실천신학은 가톨릭이나 개신교 전통의 맥락에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적절한 긴장 가운데 이 둘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해석해야 한다.

웨슬리가 받아들인 가톨릭의 협력은총과 개신교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의 우선성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도권과 활동을 이해하는가에 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신/인 협력적인 배경에서 하나님 활동을 이해하고, 개신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실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홀로의 사역을 구성하기에 하나님의 활동은 하나님의 존재의 자유와 풍성한 은혜로 비쳐진다. 하나님 사역에 어떤 응답의 가능성도 전제하지 않는다. 웨슬리의 이중적 은총 이해를 서술하고 있는 본래적 접속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사역이 아니다. 웨슬리는 신/인 협력 그 자체가 보다 크고 관대한 접속의 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은총이란 협력은총일 뿐 아니라 협력은총과 값없이 주시는 은총의 접속이다.